

## 마귀의 정체란?

마귀의 정체는 즉“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계시록 12:9) 입니다. 마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우리도 세상과 교회 안에 형성된 풍습으로 인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속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온 세상을 속인다는 말은 옛날부터 오늘 날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짐승보다 더 간교하게 만들어진(창세기 3:1) 뱀의 꾀와 속임수를 이겨내려면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어떤 말이든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하며 마귀에게 많은 방면에서 속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교만과 음란한 모습이 가득하며, 뉴스를 보아도 세상은 광란과 폭력과 잔인함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많이 속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일들을 보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악한 일도 당연하다는 듯이 속입니다. 담배와 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며, 낙태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지 않게 하고,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모두를 속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저 마음이 약한 자라고 속여서 못 믿게 하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가봤느냐 하며 그저 우리는 미생물에서 진화한 조금 발달된 생명체라고 속입니다. 또한 이단들을 일으켜서 잘못된 교리를 믿게 하여 타락하게 하고, 다른 신들 곧 마귀들을 숭배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게 하여 세상 사람들을 말도 하지 못하는 돌과 나무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없다는 등 바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뱀은 원래 색이 사물과 흡사하고, 어둡고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거하며, 바닥에 조용히 기어 다녀서 많은 동물들이 사물인 듯 가만히 있는 뱀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뱀은 살인자처럼 다가와서 쟁쟁하게 물어 독을 상대방의 몸속으로 순식간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거의 죽을 때 뱀은 그 동물을 삼켜버립니다. 독이 없는 뱀은 온몸으로 상대를 칭칭 감아서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졸라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듯 세상의 쾌락과 함께 숨어서 다가옵니다. 마귀는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여 미워하도록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브에게 선악과를 보게 하여 그것은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먼저 죄를 보게끔 합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게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 사진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쳐다보게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명품 가방, 옷 등을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다시 쳐다봐라. 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교회 가지 않아도, 기도 하루 빼먹어도 죽지 않는다. 괜찮다. 오늘은 삶을 그냥 즐기자. 내일 해도 된다.'등 사람의 정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죄로 인도합니다.

이브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쳐다볼 때 바로 생각의 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온 몸을 칭칭 감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생각인 독을 집어넣고 죄에 대해 무뎌지게 만듭니다. 결국엔 마음을 세뇌시키고, 죄에 중독 시켜서 죄, 즉 마귀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34) 마귀는 그를 죄의 저주로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악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5) 즉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빼앗은 후, 죄와 타협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죽이는 것이 마귀의 교활한 방법입니다.

귀신은 누구?

많은 사람들은 '귀신들은 노아 이전의 거인들이다. 천사들의 자식이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아니다. 타락천사다.'등 갑론을박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귀신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주장들이 성경으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꼭 알 필요가 없는 지식입니다. 귀신들은 마귀와 같은 한 패

일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쫓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도 귀신의 정체를 모른 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누가복음 9:49) 그들이 사단이든, 타락천사이든, 무엇이든 지금은 절대 좋은 관계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적일뿐입니다. 좋은 귀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들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많은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사단과 대화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우쭐하여 마귀나 귀신과 대화하려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을 약점 삼아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창세기 3:1-5)

이브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17)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브는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기억하였습니다. 이 무지함을 노려서 사단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고 또 신과 같이 된다는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죄를 지어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29-3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9-10)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믿음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말과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지어도 돼!’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말씀은 빠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빠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 의 명령들을 지키라.” (신명기 4:2) 마귀에게 속은 이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은 아담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한번 믿고 영원히 구원이라는 구절, 또 그 뜻을 나타내거나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 말씀을 준수하며 사는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는다.’는 단어는 ‘pisteuo’로 목숨도 기꺼이 바치며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타락한 마귀는 가끔씩 자기를 빛의 천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1:14) 마귀는 사람들을 의의 사역자로 가장시켜 목사, 장로, 선지자 등의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1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사역자의 말을 다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을 굳게 믿어 자신의 신앙을 세상과 짝하여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5-16)

마귀가 잡은 공중의 권세와 가짜천사 노릇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골로새서 1:16)

성경을 보면 우리의 전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곧 마귀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왕좌들과 통치들과 정사들 또 권능들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여기에서 아직도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침노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2) 여기서 천국은 heaven 이라고 해서 공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가 아닌 첫 번째 하늘 곧 지구의 공중 위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두 번째 하늘 곧 우주 위의 세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2) 다니엘은 금식기도를 하였는데 마귀가 붙잡은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날 때까지 21일 동안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습디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도는 마귀로부터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마귀를 두로의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그 당시 두로의 왕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동산에서부터 있던 그룹(천사)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로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왕, 바로 마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마련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에스겔 28:12-14)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던 높은 천사, 곧 마귀는 완전한 존재였는데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네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에스겔 28:15-17) 저주받은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속여 그들에게 맡겨진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구를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자가 마귀의 말에 속아 마귀가 이 지구를 다스릴 권세도 강권적으로 사람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 이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왕 행세를 하며 우리 인간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30)

또 바울도 마귀를 보고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린도후서 4:4)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짓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13)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한 우리를 주님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결박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들의 일들에 대하여 싸우고 무찔러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 국가들의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그 나라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그들의 살인적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고 죄의 노예로 사느냐를 결정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시어 마귀의 영역을 부수며, 하늘을 지배하는 자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내 교회, 네 교회로 나누어서 서로 경계할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었듯이 합심기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어 결박이 풀릴 정도로 한 마음이 된 뜨거운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20, 사도행전 1:14, 4:31, 2:32, 12:5, 15:30) 지금은 마귀가 있는 첫 번째 하늘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삼킬 자를 불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마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베드로전서 5:8-9)

세상에 사는 믿는 자들, 곧 우리 모두를 마귀는 삼켜버리려고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찾는다고 해도 바로 삼켜 먹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나 삼켜 버릴 수 없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만 삼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에베소서 2:2)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29) 그렇다면 왜 믿는 자들에게 나쁜 일들, 마귀의 공격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귀들, 나쁜 사람들, 질병, 나쁜 일 등 무엇이든 사용하셔서 목이 뿔뿔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죄를 회개하면 봐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죽임과 고통을 당하였고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세계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마귀를 지금 없애버리시지 않고 저렇게 놔두십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그러면 너희들도 다 지금 없애버려야겠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게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을 때는 우리도 마귀나 다름없는 악한 존재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악한 너희들도” (마태복음 7:11)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 깨끗하다고 스스로의 의를 높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욕하고 싸우고 남을 정죄하고 악한 생각을 수도 없이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믿는 자들에게도 단호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41) 절대로 이브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죄의 종으로 만들어 결국 망하고 죽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냅니다. 주님의 법을 철저히 알아서 지키고, 고칠 것은 꼭 고쳐야 합니다.

마귀에게서 승리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교도소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5:22-26) 우리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심판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무 수행자 곧 마귀들에게 넘겨주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진실하게 회개하여,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병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조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37) 이것에 연관되는 죄를 우리는 수없이 짓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복 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대충 섬기고, 대충 찬양하면서 무언가를 살 때는 신중하고 오래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관심 있는 것들에는 몇 시간씩 열심히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자신만을 사랑한 것, 이기적인 것, 죄 없다고 스스로 교만한 것, 타인을 미워한 것 등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26-29)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요한계시록 12:10) 왜, 무슨 이유로 마귀는 우리를 밤낮으로 고소할까요? 그것은 주님께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할 권리를 주장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받기 위한 것입니다. 욥기서를 잘 보시면 마귀는 하나님께 욥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꼭 받아야만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네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욥기 1:12)

우리가 선하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복종해야 마땅한 것인데 만약 불복종한다면 마귀가 고소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야고보서 4:7-10)

이 말씀을 따라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려면 1.사랑 2.복종 3.마귀 대적 4.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5.회개 6.순결한 마음 7.주님 앞에서 애곡 8.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 온갖 마법들과 뉴에이지에 빠져 많은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다녔지만 단 한명도 그를 성공적으로 자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축사할 때 마귀 때문에 피를 토하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온 힘을 다해 모든 시간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방언기도하고 주님을 찾던 어느 날, 길을 걸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에게 붙어있던 마귀들이 단번에 떨어져 나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도 비슷한데 제가 담배중독에 빠졌을 때 회개하며 제 삶을 주님께 바치고, 3개월 정도를 주님께 열정적으로 매달렸더니 교회 천장에서 불이 떨어져 제 온몸을 태우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 팔에 있던 검은 그림자 곧 마귀 같은 것이 단번에 타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요한1서 3:8)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짓는 일들을 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가 쫓겨 나가겠습니까? 나가더라도 일곱 배나 더 나쁜 마귀들을 데려와서 처음보다 더욱 나빠지고 망하게 됩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쉼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24-26)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후, 다시 죄악에 빠지면 처음보다 더 자유하기 힘든 것을 보았고, 완전히 악하게 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하고 자유하게 하신 후에 경고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 5:14) 얼렁뚱땅 몰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원칙을 지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돼. 그냥 그들이 알아서 떠나가.” 하면서 안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주님은 칠십 인의 제자들에게 또 열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표적이 일어난다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도들이 금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나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귀 쫓는 것을 절대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의 더러운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붓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붓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붓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16-23) 절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마귀를 쫓아내는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가라!” 라고 몇 번씩,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쫓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죽일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가 양들을 돌볼 때, 이리나 늑대부터 시작하여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 골리앗도 죽일 수 있겠다는 장성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는 것 또한 처음부터 강한 것들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한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하여 예수님께 데려왔던 일이 있었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능력이 갈수록 더욱 신비해졌던 것처럼 믿음이 연단을 통하여 장성하게 되어 능력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적으로 1.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 2.기도 3.찬양 4.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대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7:20-21)

제대로 마귀들을 쫓으려면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꼭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하는지, 능력이 생기려면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금식과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자주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금식은 항상 해야 하며, 제대로 된 금식을 하여서 흥약을 끊어야 합니다. (이사야 58:6)

기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이며,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인정하며 구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그들의 죄를 함께 회개해주면서 그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손의 실수를 입이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나’ 가 아닌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이고 한마음, 즉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주된 메시지는 사랑인데 서로를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이고 주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겨도, 기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회개해 주어야 하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은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기도 받는 자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둘 셋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셨고 누가 아프거든 모여서 기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14).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5:16) 여기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도 받는 자만 혼자 창피하게 나는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당신도 “저도 죄인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저도 그런 죄들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지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잘못을 고백하여 진정한 형제애가 싹틀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뜨거운 기도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속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라서 벌 받는 거야!’하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고 마귀와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누가 더 깨끗한 의인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도토리 키 재기일 뿐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닌 마귀의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단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누가복음 10:19) 이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꼭 믿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근육이 발달된 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타나게 되고, 쓰면 쓸수록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며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주십시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쫓아주십시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마귀를 쫓은 다음에는 꼭 기도를 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쫓겨난 마귀들이 당신을 목표로 공격할 것이고, 남의 병을 기도로 치유해 놓고 자신이 똑같은 병을 가지게 되거나, 나갔던 마귀와 귀신들이 '저 놈을 공격하자.' 해서 틈이 나는 대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매일 치유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들을 쫓으시고, 주님께 세세한 것을 물어보시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는 경우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 이유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 귀신들린 자가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믿음이 모자라는 경우
2.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그를 겸손하게 하려는 경우 (고린도후서 12:7-9)
3. 우상이 되는 것들이 집에 있거나 용의 그림들이나 오래된 석상이나 다른 신들이 집에 있는 경우: 그들의 조상들이 잡신을 섬기는 집안이거나 저주가 따라다니는 경우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어야 하고 3-4대까지 내려오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26:1, 에스겔 6:9, 14:3, 20:8)
4. 기도를 받는 자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경우, 음란물이나 세상 것들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귀신을 쫓아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곱 배나 더 심한 것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기도 받는 자를 더욱 나쁘게 하고 망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14, 마태복음 12:45, 누가복음 11:26)
5.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 경우 (야고보서 4:6)
6.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는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 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3:10)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능력이 있는 자들도 귀신을 쫓았지만, 받는 자의 태도가 엉뚱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귀신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고집부리고, 우겨대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보고, 철저히 회개하여 고칠점은 고치고 겸손히 주님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십시오.





